

보도시점 2025. 4. 15.(화) 00:00 배포 2025. 4. 15.(화)

※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2025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선정

- 수익 사회환원 위해 재단 설립...안창호 동상 건립·대한민국민회관 복원 등 앞장
- 韓·美 대학, 연구소 등에 거액 쾌척...세계 한상 네트워크 발전에도 큰 족적
- 韓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美 캘리포니아주의회 ‘홍명기의 날’제정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미동포 기부왕으로 불리는 故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구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

※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5년 3월 첫 ‘이달의 재외동포’로 제주 관광 산업 발전을 이끈 재일동포 기업인 故김평진(1926~2007)이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선정됐다.

□ 홍명기 전 이사장은 성공한 재미동포 기업인으로, ‘세계 한상(韓商)의 대부’, ‘미주한인사회의 기부왕’ 이라고 불린다.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을 비롯해 대한민국민회관 복원 등 미주 독립운동 역사 보존을 지원하고 한인 차세대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후원했다.

○ 그는 1954년 미국에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페인트 회사에 취업했다. 인종 차별에 한계를 느끼고 1986년 51살의 늦은 나이에 산업·건축용 특수페인트 회사를 창업해 연간 3억 달러(약 4,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 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거상(巨商)으로 꼽힌다.

○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나자 현장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에게 한인들의 억울함을 대변할 지도자가 없음을 목격한 그는 사업적 성공을

한인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약 146억원)를 출연해 ‘밝은미래재단’(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M&L Hong 재단’의 전신)을 설립, 본격적으로 한인 권익 향상을 위한 후원 활동을 전개했다.

- 그는 특히 교육을 통한 민족 혁신을 강조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에 깊은 영감을 받아, 민족 정신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신이 직접 기부금 15만 달러를 쾌척했다. 그의 기부가 기폭제가 되어 동포사회 기부와 우리 정부 지원금 등을 합쳐 약 60만 달러를 모금해, 2001년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 맞은 편에 안창호 선생 기념 동상을 건립했다. 이 동상은 한인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로 자리매김했다.
- 또한 2002년 LA 다운타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0번과 110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를 ‘도산 안창호 IC’로 명명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 협의와 주 의회 결의를 통해 IC 4곳에 그가 후원한 ‘도산 안창호 IC’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는 등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다.
- 2003년에는 미국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대한인국민회관’이 노후화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대한인국민회 복원사업회장을 맡아 기금 모금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한인국민회관’을 보존해 역사 박물관이자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자신이 창립한 페인트 회사를 매각한 후 그는 한미박물관 건립 기금(256만 달러)을 비롯해 UCLA와 LA 동부 라시에라 대학에 각 20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영웅 김영옥 미 육군 대령의 이름을 딴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도 37만 달러를 쾌척했다.

- 그의 기부 활동은 고국에서도 이어졌다. 2016년 한상들이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한상드림’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국내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위해 10만 달러, 화학 분야 후학 양성을 위해 삼육대학교에 100만 달러 등을 희사했고, 수년간 탈북자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세계한상대회(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창립 멤버였던 그는 2013년 제12차 대회의 대회장과 리딩 CEO 의장 등을 맡아 세계 한상 네트워크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 그는 2021년 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용지 대금으로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모국과 동포사회에 대한 기부를 이어왔다.
-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2002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2년 그의 생일인 6월 20일을 ‘홍명기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 이상덕 청장은 “홍명기 선생의 기부와 후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독립운동 정신과 그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세계 한상의 롤모델이었던 그의 공적을 기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최되는 4월에 맞춰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요 >

- 행사기간 : 2025.4.17.(목)~4.20.(일)
- 행사장소 : 미국 애틀란타 Gas South Convention Center
- 프로그램 : 개·폐회식,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VC 투자포럼 등

붙임 : 2025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 홍명기 상세자료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심의관	곽삼주	032-585-3154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32-585-3161